행정수도 세종시 포교 거점 불사 '본격화'

조계종 불사추진위원회 광제사 · 문화체험관 착공

신행 · 전통체험 공간 기대
세종시 포교 활성화 효과
2021년 12월경 준공 계획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불사추진위원회는 6월17일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산82 일원에서 전월산 광제사 대웅전과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을 위한 착공식을 봉행하고 불사를 위한 첫 삽을 떴다. 사진은 주요내빈들이 착공을 기념하기 위해 시삽을 하고 있는 모습.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에 불교전통문화를 체험하고 불교를 신행할 수 있는 현대적 도량을 건립하기 위한 불사가 시작된다.

조계종 불사추진위원회는 6월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산82 일원에서 전월산 광제사 대웅전과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을 위한 착공식을 봉행하고 불사를 위한 첫 삽을 떴다.

행정수도인 세종시에 불교문화체험과 지역 거점 포교 도량 건립을 발원한 조계종이 지난 2014년 세종시 종교부지를 매입한 지 6년 만에 본격적인 불사에 들어간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조계종이 추진하는 세종시 불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전통문화유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세종시에 불교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불교문화체험관'과 지역 불자들의 신행을 책임질 도량인 '전월산 광제사'이다. 이날 행사는 체험관과 광제사 대웅전 착공을 기념하고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열렸다.

전월산 광제사와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은 대지면적 16,000㎡(4,840평) 부지에 세워진다. 특히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은 연면적 5,495.96㎡(1,662.5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체험관은 불교미술 · 공예와 승무 · 범패 등 공연, 참선수행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체험관에는 상설 · 기획전시관과 공연시설, 체험 · 교육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체험관과 함께 착공된 광제사 대웅전은 연면적 306.18㎡(92.6평) 규모로 전통한옥 양식으로 건립된다. 건립에 필요한 비용은 백만원력결집 불사기금 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체험관과 광제사 대웅전 건립은 2021년 12월에 마무리되며, 이후엔 사찰 전각 건립을 위한 2단계 불사에 들어간다는 게 조계종의 계획이다.

조계종은 한국불교문화체험관과 광제사를 체험 공간이자 승가 · 재가 · 시민이 함께하는 도량으로 운영한다는 마스터플랜을 세웠다. 전통문화체험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를 책임지고, 충남권 포교를 담당하는 지역 포교 전진기지로 발돋움시키겠다는 것이다.

실제, 착공식에서 주요 내빈들의 메시지에는 이 같은 발원이 담겼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인사말에서 "세종시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아름다운 산자락에 터를 잡은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의 건립은 행정수도 세종시의 전통문화 핵심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한국불교문화체험관과 광제사는)세종시민과 국민들의 불교문화체험을 책임지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복합문화거점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착공식에서는 광제사와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이 세종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거듭나길 바라는 발원들이 이어졌다. 덕숭총림 수덕사 주지 정묵 스님(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은 "오늘의 대작불사는 세종시의 새로운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전 세계에 한국전통문화와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한 첫 걸음이자 국태민안과 세계평화를 위한 초석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한국불교문화체험관과 광제사가 세종시를 문화수도로 격상시킬 중요한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날 착공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지홍 스님,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 수덕사 주지 정묵 스님,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 이춘희 세종시장, 최병구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등 주요내빈 100여 명만 참석해 진행됐다. 또한 세종시 불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온 세종시사암연합회장 환성 스님에게 표창패가 수여됐다.

"병든 지구 살리자" 불교기후행동 공식 출범

6월 15일 발족식…상임대표 미광 스님



불교기후행동이 6월 15일 공식출범 했다.

전세계를 공포로 밀어넣은 코로나19를 비롯해 미세먼지와 화재, 가뭄과 홍수 등 각종 자연재해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결과물이다. 동시에 무분별한 개발과 공장형 축산업,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난 데 따른 부작용이기도 하다. 기후위기는 인간이 만든 재앙이다. 병든 지구를 살리기 위한 개개인의 실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가 지구에 닥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개개인의 실천을 넘어 인식 전환을 꾀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에 착수했다. '불교기후행동'을 발족하고 개인과 사찰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연대활동을 시작한 것.

불교기후행동(상임대표 미광)이 6월 1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발족식을 열고 공식출범했다. 불교기후행동은 개인과 시민사회단체, 사찰 등이 병든 지구를 살리기 위해 원력을 모은 연대체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를 주축으로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광주전남불교기후행동, 조계종 포교사단 인천경기지역단과 지역 곳곳의 사찰 등이 '지구 온도 상향선 1.5℃'를 지키겠다는 원력으로 뭉쳤다. 지구 온도상승 제한선인 1.5℃ 중 이미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1℃가 상승했고, 이제 남은 온도는 0.5℃에 불과하다.

불교기후행동은 향후 △2020년 전국적 기후위기 비상선언 및 국회 차원의 위기대응법 제정을 이끌고 △불교계 각 종단과 국회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설치와 운영예산 책정, 사찰 주도의 에너지 전환△기후행동을 위한 불자들의 연대의장 마련 등을 실천서약으로 발표하고 각 분야에서 다각도의 노력을 개진할 것을 선포했다.

또 기후행동 캠페인과 지역별 불교기후학교 운영 등을 토대로 불교계 인식확산 및 실천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9월 22일경 종교인 대화마당에서 5대 종교 기후위기비상선언을 도출해 종교인들의 동참도 이끌 계획이다.

불교기후행동 상임대표 미광 스님은 "전통적으로 불교는 수천년간 인간과 자연을 하나로 여기며 살아왔다. 이제라도 불자들이 환경파괴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미래불교 경영발전 위한 포럼 발족

석탑불교경영포럼, 6월 12일 서울 진관사서 출범식 개최



고려대 불교교우회는 6월 12일 서울 진관사에서 '석탑불교경영포럼'을 출범했다.

정재계 인사들이 불교경제와 사찰경영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고려대 불교교우회(교우회장 홍승기)는 6월 12일 서울 진관사 함월당에서 '석탑불교경영포럼'(이하 석탑포럼)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 발족식에는 이기수 석탑포럼 이사장(前고려대 총장), 홍승기 석탑포럼 상임대표(前BBS불교방송 사장)를 비롯해 송석구 삼성경제연구소 고문(前동국대 총장), 김영우 한생산업 회장, 김성곤 평화 이사장(前국회의원), 박원식 신한은행 이사회 의장, 조창희 前문화부 종무실장, 이선재 BBS사장 등이 참여했다.

홍승기 상임대표는 이날 발족식 후 포럼 활동 계획으로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대학에서의 불교경영 세미나 개최 계획을 밝혔다.

또 교육 아카데미와 실시간 원격방송을 통한 온라인 법당도 운영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가 형편 어려운 학생에게 10억 쏜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동국대 학생들을 위한 동국대 교수들과 직원들의 기부릴레이가 펼쳐지는 가운데 동국대가 이들 학생에게 총 10억원의 '코로나19 극복 장학금'을 지급한다.

동국대는 최근 '코로나19 극복 긴급 모금 캠페인'으로 모은 기금 전액을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7월 중순까지 1인당 50만원씩 총 2000명에게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0일 동국대 문과대학 교원들의 기부로 시작된 코로나19 극복 모금 캠페인은 이 대학 교수, 직원, 동문, 불교계의 '기부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다. 5월 31일까지 기부 릴레이에 동참한 인원은 600여 명에 달하며 모금액은 약 10 억 원이다.

장학금 신청대상은 2020-1학기 재학생(학부, 대학원) 중에서 △학부모의 실직 및 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자 △본인 또는 가족의 코로나 확진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받은 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정책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자 △본인의 아르바이트 등이 중단되어 생활이 어려워진 자 △기타 코로나19 긴급 피해 발생자 등이다.

노덕현 기자

